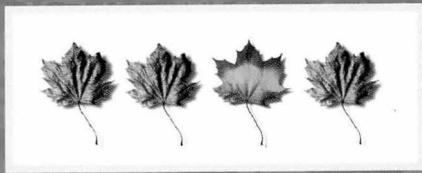


HIV 감염인에 대한 심리적 지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타난지도 이미 감산이 두 번이나 변할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흘러간 시간만큼 HIV 감염인의 수도 늘었지만, 여전히 에이즈 HIV 감염인에 대한 시각은 따갑기만 하다. HIV 감염인의 인권은 다수의 건강을 위한다라는 명목 하에, 거대한 공익이라는 어유를 들어 짓밟히기 일상이고, 또 멀리하고만 싶은 존재로만 남게 된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것은 이제 조금씩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글 박광서 러브포원 대표, 레드리본정보센터 운영위원



나는 에이즈는 육체적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질병이라 말하고 싶다. 혼자서는 결코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병. 그러나 한 번 사회로부터 멀어진 HIV 감염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도래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자료를 재분석하여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통계(통계청) 지표와 비교한 결과는 과히 놀랄 정도이다. 자살은 HIV 감염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HIV 감염인들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 전체에서의 자살 사망률보다 무려 10배 가량 높은 수준(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으로 나타났다. 그와 더불어 러브포원 24시간 HOT LINE과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오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감염인임을 말하면서 맘 편하게 상담을 받을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HIV 감염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질환과의 싸움 외에도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방황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첫 투약을 받을 때나, 발병을 했을 때 등 HIV 감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커다란 심리적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지와 상담은 HIV 감염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요즘 사회에선 보편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유명인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인다. 우울증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때는 혼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례

- 2001년 4월 발견된 정신질환자인 HIV 감염인 A씨의 경우 거출한 상태에서 미혼모로 발견되었으나 출산한 환자를 수용할 요양기관이 없어 다시 귀가조치 됨
- 2004년 발견된 HIV 감염인 B씨는 만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나 수용될 정신병원 및 요양기관의 부재로 가족들에게 맡겨진 채 방치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인 감염인 C씨의 경우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어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우나 복합질환자는 정신병원 수용이 어렵다고 거부되어 관계기관에 수 차례 진정을 한 후에야 입원치료를 받음
- 2000년 감염사실이 확인된 정신질환자인 HIV 감염인 D씨는 2004년 10월부터 정신과 약의 복용을 거부하면서 증상이 나빠져 가족들의 식사에 자신의 피를 섞어주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나, 정신병원에서는 감염내과나 격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입원을 거부하여 가족들이 보건복지부, 청와대 진정을 통하여 2005년 1월 모 정신병원에 입원 되었음. 3개월만에 퇴원 하였으나 퇴원 직후 다시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항바이레스제를 억지로 먹이는 등 증상이 나빠졌고, 다시 입원시킬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낀 가족들이 모두 집을 떠나 환자는 2개월동안 홀로 방치되다 결국 5월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망 10여일 후 이웃주민의 신고에 의해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집에서 발견됨

(출처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감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HIV 감염인에 대한 지지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만의 지지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지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동료 감염인의 지지 및 상담
- 병원에서의 복약상담 및 생활상담
- 심리상담 및 정신과적인 상담
- 지역 사회의 지지

위 네 가지의 지지가 동시에 제대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HIV 감염인에 대한 지지는 결국 HIV 감염인의 건강한 삶과 연결되며 이는 곧 HIV의 예방에도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HIV 감염인의 인권증진, 복지향상이 에이즈 예방의 최선임을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과연 HIV 감염인이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분들이 몇 분이나 준비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